

‘孫 大세론’에 우원식 변수

신당 오늘 새 대표 선출...정대철 불출마 수도권 초·재선 ‘孫 지지’ 親盧 선택 주목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새 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출마 희망자가 자천타천으로 늘어나면서 계파 간 이해 득실 따지기에 분분하다. 더욱이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손학규 대세론 속 견제세력 등장 =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쉽게 새 대표로 선출되는 듯 했던 분위기가 견제세력 확산으로 급변하면서 의형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손 전 지사와 함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으로는 재야파 출신의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의 김민하 전 중앙대 총장, 김호진 당 채신위원장 등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의 일대 변화가 시급하다는 시민사회진영과 초선그룹 등에서 강한 야당과 과격적 인물이 필요하다는 권유가 많아 (대표 선출 전에) 나오기로 결정했다”며 대표 출마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민하 전 총장은 백낙청 등 시민사회 원로 7인 그룹의 추천을 받았고 일부 중진들도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 높은 당 채신 촉구와 ‘외부인 사수혈론’을 주장한 문병호 의원 등 ‘당 채신 초선모임’은 독자후보론과 특정 후보 연대론을 놓고 최종 입장을 조율 중이며 독자 후보로는 문병호·이계안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 손학규성향인 친노그룹도 이해찬 전 총리와 강금실 전 장관 중 독자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 아예 중앙위원이콧을 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선 실시를 주장했던 정대철 상임고문은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미애 전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손 전 지사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물론 손 전 지사가 2차 투표에서 새 대표로 뽑힐 가

능성이 크겠지만 당 채신 추진력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 손학규 계파에서는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소기의 득표를 달성, 세를 과시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인적쇄신으로부터 보다 자유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 마지막까지 득표를 올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전 지사 측 우상호 의원은 “과반 가능성이 막연하다. 까뵈야 알고 선거운동을 하면 드러나는데 지금은 도저히 파악이 안 돼서 판세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이은 탈당 움직임 = 안영근 의원에 이어 지난 7일 수원원의 심재덕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더욱이 9일에는 오세재 의원(청주 흥덕 갑)이 탈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총정권은 보수성향이 강하다”며 “총정권 의원들이 자유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나도 고민 중”이라며 충청지역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전했다.

그는 “손학규 체제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손학규 체제가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같길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공천갈등 ‘폭풍전야’

박근혜 前 대표 “인위적 물갈이 안된다” 총선거획단 발족...주도권 싸움 본격화

한나라당 내부의 공천 갈등이 ‘이 전 화제참사’ 비보 속에 일시적인 소강국면에 들어간 느낌이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9일 공천과 관련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일단 중단했다. 화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작용한 탓이다.

그러나 공천 시기 등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과 박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10일 총선거획단 발족과 함께 공식적인 공천 절차가 개시되면 양측간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거획단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업무를 다루게 돼 ‘비주류’인 박 전 대표 측에서는 공심위가 자파에 불리하게 구성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 대표 측은 사퇴를 요구해온 이방호 사무총장이 총선거획단 단장을 맡게되는 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이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의가 와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심상치 않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총리직에 뜻을 두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정치 발전과 나라를 위해 당에 남겠다”고 말했다. 대표 재임 시절 공천문제 등에서 ‘발

전적 개혁’을 이뤘다고 자부해온 그가 굳이 ‘정치 발전’이란 단어를 쓴 것은 과거의 예와 비교해 공천 시기를 늦추거나 ‘인위적 물갈이’를 해서 당내 개혁의 성과를 퇴행시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명박 내각과 분명히 선을 긋고 본격적인 당내 입지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날 친박계 의원들은 외부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측근인 유정복 의원의 출간기념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표 역시 공천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일 저녁엔 박 전 대표와 측근 의원 30여명이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갑 의원의 정계은퇴 위로연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연남스

박주선·서갑원·김영록·임현모·김영룡씨 출판기념회

4·9 총선 헌장

정치인 등 대거 참석

○박주선(59) 전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 동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최한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에는 이인제 의원·강운태·장성민 전 의원 등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2천여명의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일대가 교통 체증을 빚을 정도로 성황. <사진 맨 위>

광주교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뒤 엘리트 검사로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 전 의원은 광주 동구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이 책을 통해 3번 구속과 3번의 무죄 판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아픔을 겪었던 자신의 인생 역경과 공직 생활에서의 활동상 등을 소개.

4년 의정활동 답아

○대통합민주신당 서갑원(46)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 활동 등 4년간의 국회 의정 활동 등을 담은 ‘발견의 정치, 서갑원의 순수’와 열정’ 책을 소개. <사진 두번째>

서 의원은 책에서 “지난 17년간의 정치 입문을 돌이켜 보면 그동안 뜻다한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며 경쟁력 있는 농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

2천 5백명 참석 성황

○김영록(53) 전남도 행정부지사 9일 완도군민회관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의 키워준 건 8할이 바다였다’라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 <사진 세번째>

오는 4월 총선에서 완도·강진지역 출마를 결정할 김 부지사는 이날 중 부지사직을 사퇴한 뒤 총선 표밭갈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수십년 공직생활 경험을 지역 발전에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

교육경험 담담히 소개

○임현모 광주교육대 총장은 9일 광주교육대 강당에서 임내연 전

광주교감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아름다운 미래’라는 책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 등을 담담하게 소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광주시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임 총장은 앞으로 광주 북갑 지역 출마를 위한 얼굴 알리기에 나설 계획. <사진 네번째>

민-군 상생 협력해야

○화순 능주 출신의 김영룡(57) 국방부 차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윤광웅 전 국방장관·장승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정세균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골소년의 세상구경’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소개. <사진 맨 아래>

지난 1974년 제15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과 함께 재무부에서 관료생활을 하던 김 차관은 지난 2004년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혁신기획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11월에는 민간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방부 차관을 맡아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화순이나 광주 남구 출마를 검토.

정기남씨 출판기념회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9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빌딩 메트로홀에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채·강창일·박영선 의원 등 정치인,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7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몰린 가운데 ‘성찰과 혁신의 리더십! 대중에게서 그 지혜를 구하라’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갖고 광주 남구 출마의 뜻을 표명.

이영진씨도 총선 후보

○이영진 전 문광부 문화중심 도시조성 추진기획단장은 9일 5·18 기념문화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후보를 본격화. 이 전 단장은 “올해는 더욱 많은 기회를 통해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고 발전되는 지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총선 출마 의지를 천명.

의정보고회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



원들이 공직선거법상 의정 활동 보고회가 금지되는 10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 등을 홍보.

대통합민주신당 김호석(59) 원내대표가 9일 담양군 문화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진 것을 비롯, 김태홍(66) 의원은 전남대 대강당, 지병문(55) 의원은 광주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김성곤(55) 의원은 여수 시민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

/홍행기·박지경·김지을 기자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사진=나명주기자 mjna@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수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0125주곡·99999